그 많던 택시는 어디로?…광주 '심야 택시잡기 전쟁'

심야택시 왜 안잡히나 봤더니

수입 줄어든 택시기사 대거 떠나 배달·대리운전으로 1000명 전직

택시부제에 매일 500대 묶이고 상당수 고령화에 야간 운행 기피

거리두기 해제 후 귀가 발동동 하반기 기본요금 인상 가능성도

택시운전원 모집 현수막 내건 광주 법인택시 회사.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회식을 마치고 밤길을 걸어 퇴근했다.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다. 광주 충장로에서 밤 11시 동료들과 헤어진 그는 진월동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 해봤지만 허사였다고 한다. 카카오택시에 콜을 넣어봤지만, 배차는 되지 않았다. 김씨는 "택시 대란은 서울 얘기로만 생각했는데 광주도 심각한 것 같다. 집까지 걷는 1시간 30분 동안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지나가는 빈 택시는 아예 없었고 '카카오T' 앱에 여러차례 접속해도 카카오택시를 잡을 수 없었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광주 밤길을 걸어서 퇴근하는 시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밤 시간대 택시 잡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택시 대란은 서울 등 수도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광주에서 택시 잡는 게 대체 왜 이렇게 힘드냐"며 불만섞인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광주 76개 법인택시회사가 가입된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 측 설명을 들어보면 밤에 택시 잡기가 힘든 이유는 복합적이다. 택시기사 구인난(기사 부족)과 운전기사 고령화 및 근무 패턴 변화 그리고 택시 신차 출고 지연 등이 꼽힌다.

일단 법인택시(회사택시) 기사가 크게 줄어든 것이 심야 택시 부족 사태의 첫 요인이다.

지난 2년간 식당 등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이 제한되면서 일감과 수입이 줄어들자 택시기사들이 대거 떠났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수요가 폭발한 업종인 택배기사, 음식 등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전직한 택시기사가 광주에서만 1000여명에 이른다는 게 법인택시조합 측 자체 집계결과다. 코로나 유행 이전인 지난 2019년 광주 법인택시 기사는 4000명을 웃돌았는데 최근 조사 결과 2600명 수준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여기에 택시부제 운영으로 매일 차량 500대가량이 묶이면서 실제 매일 운행되는 법인택시는 면허 대수 3367대보다 크게 적은 2000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합은 파악하고 있다.

24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광주공항 택시 정류장에 개인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우석원 광주택시운송조합 교육훈련부장은 "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택시회사마다 회사 차고지 등에 기사님 모집 현수막을 내걸고 택시 내부에도 모집 광고를 싣고 있지만 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택배와 대리운전기사를 하는 게 당장은 수입이 낫고, 전업하느라 화물차, 오토바이 등을 산 사람들도 있어 구인난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운전기사들의 고령화와 근무 패턴 변화도 심야 택시 부족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젊은 사람들이 대거 새 일자리로 옮겨간 데다 법인택시, 개인택시 가릴 것 없이 고령화가 진행돼 밤 근무를 선호하는 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운전기사가 부족하다 보니 코로나 이전처럼 택시 1대를 2명의 운전기사가 교대로 종일 근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원하는 시간 근무만 하면 되는 구조라서 야간 운행 택시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년간 손님이 끊기는 밤 10시 이전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습관이 운전기사들 사이에서 자리 잡다 보니, 야간 운행에 나서려는 이가 많지 않다는 게 택시업계 설명이다.

최용석 동양택시 영업부장은 "기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운전기사님들의 연령도 60대 이상 고령자가 많아 밤 근무를 기피한다"며 "밤에는 대부분 술드시고 타는 손님들인데 연세 지긋한 기사님들은 폭언·폭행 등 봉변 위험까지 감수하며 밤에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법에서 정한 차령(대부분 6년)이 지나 신차 구매를 해야 하는데 주문 후 1년은 대기해야 신차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택시 및 완성차업계 설명이다.

광주시는 심야 택시 부족 사태를 일단 일시적 현상으로 보면서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고객 수요 증가와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타개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택시업계는 2019년 3300원으로 인상된 택시 기본요금을 4600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요금변경신고서'를 지난해 말 광주시에 제출했고, 광주시는 이 요구가 타당한지 검증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7월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인상 수준 등 광주시 방침을 정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 정책위원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9월께 택시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것으로 택시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또…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서 근로자 사망

펌프카 장비 덮치며 중국인 참변 경찰, 불법재하도급 의혹 수사 노동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펌프카) 부품에 맞아 숨졌다.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에 따라 노동당국은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에 나섰다. 경찰은 펌프카 운전원과 현장 책임자 등의 과실 여부, 노동계가 제기한 '콘크리트 타설 불법재하도급'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콘크리트를 실어 고층까지 타설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의 붐(길이 30m가량의 금속 재질 타설관)이 타설 작업장으로 떨어졌다. 수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붐은 작업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돕던 중국인 근로자 A(34)씨를 덮쳤고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펌프카에서 분리돼 떨어진 붐은 연결 부위가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붐이 끊어진 부위에선 과거 용접했던 흔적이 발견됐다.

또한 끊어짐 사고가 발생한 펌프카는 올해 1월 건설기계안전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광주시 북구 조사 결과 드러났다. 건설 장비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졌거나 작업이 무리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계에서는 붕괴사고가 난 학동·화정동에 이어 이 사업장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전문건설업체인 (주)조형기술개발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겼고, 조형기술개발측은 장비임대업체인 '안전펌프카'와 계약을 맺었는데, 안전펌프카 측이 또 다른 펌프카 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게 건설노조 측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건설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안전펌프카'에는 펌프카 장비 자체가 없다. 경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시 북구 임동 아파트신축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가 부서지면서 노동자를 덮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전남 건설노조 제공〉

광주시 "허백련 동상 앞 '서정주 단죄문' 옮길 것"

의재 허백련 동상 앞 서정주 시비 친일 단죄문 설치논란〈5월 24일 광주일보 6면〉과 관련 광주시가 단죄문을 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광주시는 허백련 동상 앞에 설치된 친일 단죄문을 지하철 역 방향으로 5m 이설하기로 하고 점유 허가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동상이 설치된 학동소공원 부지가 도로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동상 앞 바닥에 새겨진 '의재도인 동상명'(毅齋度人 銅像銘)이라는 글귀를 서정주 시인이 작성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8월 동상 앞에 '친일 반민족행위자 서정주'라고 새긴 친일 단죄문을 설치했다.

광주시는 친일 단죄문이 "의재 선생을 친일파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친일 잔재 조사 태스크포스(TF)에 의견을 물어 이설을 확정했다.

하지만 단죄문을 동상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옮기는 것이 오해 불식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한편 광주시 동구는 학동소공원을 다시 꾸밀 예정인 가운데 재조성 과정에서 현재 무등산을 바라보고 있는 의재 선생 동상 방향을 시민들이 더 잘 볼수 있도록 무등산을 등지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전 대표 입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권순호 전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르면 다음 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권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권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11일 근로자 6명이 숨진 붕괴사고 당시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3월 28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 등에서 "시공사(현대산업개발) 측이 1·2단지에 각 3명씩 총 6명의 품질관리원을 배치해야 함에도, 실제 근무한 품질 관리자는 1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무지구(상가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